

# 종이 없는 조직문화 혁신

### 군산시, 행안부 모바일 메신저 활용률 전국 최상위 10개 기관 선정

그린뉴딜 선도지역인 군산시가 종이 없는 페이퍼리스(paperless) 정책을 도입한지 7개월 만에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시는 행안부가 지난 28일 실시한 정부기관 모바일메신저 '바로톡' 전국 활용률 점검에서 전국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포함한 300여개소 기관 중 상위 10개 기관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바로톡 활용률이 높은 기관은 종이 없는 업무환경이 조성됐다는 방증으로 업무가 전산화된 만큼 일처리 속도

도 빨라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코로나19 이후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탄소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종이 사용을 관공사인사에서 적극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페이퍼리스(Paperless)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부분도 주목할만 하다.

시는 지난 1월부터 강임준 시장의 특별지시사항으로 간부회의나 각종 회의 시 회의자료 출력없이 테블릿 PC만 지참해서 참석하고, 직원 간 보고체계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간소

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직원 전산망에 익명토론방을 개설해 다양한 정책을 종이 보고서 없이 자유롭게 제안하게 하는 등 행식을 탈피한 혁신 기반도 마련해 나가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도시로 탈바꿈 되고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맞춰 종이 없는 페이퍼리스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해 군산시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군산=한경봉 기자*



한국전력공사 익산지사는 익산시자원봉사센터와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활동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 익산시 '사회공헌활동 맞손'

### 한전 익산지사 · 자원봉사센터 환경개선 관련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력공사 익산지사는 익산시자원봉사센터와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지역사회 환경개선 관련 상호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ESG 경영실천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이어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지속해서 공동사업을 발굴해 지역사회에 유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관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한전 익산지사는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된 전동시장에 비상 발전차를 투입하는 등 지역사회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초·중학교 대상 '주니어 전기교실', 다문화가정 지원 등 지역사회에 꾸준히 공헌하고 있다.

김광중 한국전력공사 익산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대표적 사회책임기업으로서 ESG 경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데 교두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기자*

## '텃밭에서 놀자' 어린이 원예체험 프로그램 인기

### 군산시, 유치원 · 어린이집 대상 원생들의 정서안정 농업체험 기회 제공

군산시는 지역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원생들의 정서안정과 농업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텃밭에서 놀자! 어린이 원예체험 프로그램' 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원예체험 프로그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어린이집에 상자텃밭을 지원하고, 농촌과 자연을 접할 기회가 적은 어린이들이 직접 텃밭을 가꾸며 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가시키기 위한 영농체험 활동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5월 상자텃밭 분양사업 공모를 통해 어린이집 3개소에 텃밭상자를 지원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7월까지 4회에 걸쳐 원예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군산시는 지역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원생들의 정서안정과 농업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텃밭에서 놀자! 어린이 원예체험 프로그램' 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했다.

또한 직접 키운 채소를 식재료로 활용해 샌드위치, 카나레 등 간식을 만들어 먹는 요리체험을 통해 즐거움과 건강한 식생활교육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군산=고병만 기자*

##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소상공인 온라인 카탈로그 지원사업 모집

군산시는 (재)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새로운 판로확장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온라인 카탈로그 지원사업' 을 추진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온라인 카탈로그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침체와 젊은층의 쇼핑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관내 소상공인의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한 제품사진 촬영 및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 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온라인 판매를 희망하는 군산지역 소상공인으로, 사진촬영이 가능한 유형의 자사 상품 · 제품을 보유한 소상공인 사업자 50개사를 선정해 온라인 카탈로그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종혁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온라인 카탈로그 지원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시장

확대 등 변화된 소비 · 유통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카탈로그 지원사업 접수는 이메일(gcdf@naver.com)과 방문접수(공설시장 3층)로 진행되며,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상권활성화재단(063-443-82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한경봉 기자*

## 군산시 지사협, 수송동 지역아동센터 3곳 간식 전달

군산시 수송동은 천사누리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미아, 김종필)가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80여명을 위해 푸짐한 당수육과 감밥 등을 제공하는 '행복나눔데이' 를 실시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취약계층 아동들이 방학동안 자주 머무르는 지역아동센터 3곳을 방문해 정성스레 준비한 간식과 마음을 전달했다.

이미아 민간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몸도 마음도 지치는 요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소외계층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동참했다"며 "앞으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따뜻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필 수송동장은 "소외된 아이들의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정기적인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수송동 천사누리지역사회보



장협의체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위한 지원사업은 아동이 가정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상반기 삼겹살데이를 시작으로 이번이 두 번째 실시됐으며 하반기에도 2회 지원할 계획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추경 1조 6299억원 확정

익산시의회가 제236회 임시회를 지난 30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했다.

시의회는 임시회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1조6299억원을 확정했다.

또 조례안과 동의안, 중앙동 침수피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중앙동 침수피해 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오는 10월까지 관련 부서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유재규 의장은 "중앙동 침수피해 상인들의 빠른 일상 복구를 위해 시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기자*

### 군산시 신풍동, 쉬어가는 야외 무더위 쉼터 인기

군산시 신풍동은 폭염으로 지친 주민들이 더위를 피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야외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소공원 2개소에 설치된 야외 무더위 쉼터에는 은열 예방을 위해 떨리셔도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수막을 게첨하고 은열예방을 위해 매일 시원한 얼음과 생수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이용객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준수해 쉼터를 이용해주기를 당부하고 있으며, 특히 생수는 투명페트병으로 제공하며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올바른 방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이현숙 신풍동장은 "최근 쉼터가 계속되고 있어 노약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 관리에 더불어 코로나19 방역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풍동은 실내 무더위 쉼터로 활용되고 있는 경로당 8개소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